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추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10.3.18)됨에 따라 6개 시험연구원을 3개 전문 시험인증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발표하였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한국전자파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다.

그간 SGS, TUV, DNV 등 글로벌 시험기관은

대형화로 자국시장은 물론 해외시험인증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시험기관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내시장도 40% 정도 점유하는데 불과하며, 해외시장 진출 미흡 등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시험연구원의 매출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시험인증기관인 SGS(스위스)의 5.2조원('09) 비교하여 6개 기관의 총매출(1천6백억)이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세계최대 시험인증기관 SGS와 국내 통합 6개 시험인증기관과 비교에서 SGS는 매출 32배, 중

기관명	매출액	종업원수(명)	해외지사수(국/지사)
SGS	5조 2천억원	59,000	140/1,000
통합 6개 시험인증기관	1,616억원	1,466	2/10

업원 수 40배의 규모이다.

국내시장에서도 24개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이 브랜드와 규모, 시험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를 기반으로 국내시장의 60%를 잠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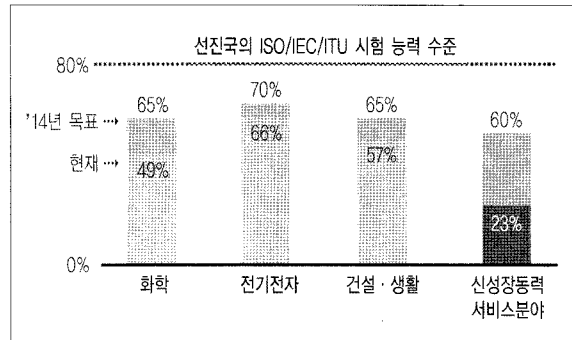
이에 국내 6개 기관은 자발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직원,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동 기간에 노사협의, 직원총회 및 법률·회계자문을 거쳐 통합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각 해당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09.7)후 자체적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운영('09.8~'10.2)해 왔다.

앞으로 6개 시험연구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설립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거쳐,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3개의 전문시험인증기관을 금년 7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을 계기로 신설 시험인증기관은 국내시장 장악력 확보 뿐만아니라 체계적인 해외시장진출, 시험연구장비 개발사업추진 등 시험인증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현황을 보면, 국내 시험·분석 능력이 선진국의 1/2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열세이다. 국제규격(ISO, IEC) 시험능력은 다국적 시험기관이 80%에 비해, 국내 기관은 평균 5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시험·분석 기관의 규모 영세로 글로벌 브랜드 확보 어려움이 있다.



7대 다국적 시험기관(SGS, BV, Dekra, TUV, Intertek, DNV, Applus+)이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나, 1,59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시장점유율은 4.2% 상당이다.('09년 기준)

해외 시험기관에 직접의뢰 1.5조원, 국내 진출 다국적시험기관 의뢰 1조원 등 총 2.5조원이 해외유출(총 국내시장 4.2조원의 60% 상당)로 추정된다.

【 세계시장규모, 7대 시험기관및 국내기관 매출 점유율 】

